

월간 증 현

'80 4 월호



북한선교의 의의

오늘날 세계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억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복음과 무관하게 생활하고 있다. 특별히 세계인구의 65%가 살고 있는 아세아만 해도 그 절반 이상이 공산권에서 살고 있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거나 혹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는 내 가정과 이웃과 민족을 복음화해야 할 사명과 함께 세계를 향하여 선교해야 할 사명도 있으며 특별히 공산권, 회교권, 불교권, 기타 토 예 교권도 우리의 선교대상지에서 결코 제외될 수는 없다. 가정과 이웃과 민족과 세계가 다 우리의 선교대상인 바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는 태도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므로 어느 영혼이 더 귀중하다는 서열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명이 있으니 그것이 곧 북한선교이다.

북한선교는 다음 4가지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민족복음화의 범위에서 북한이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족복음화란 대한민국의 3천 8백만 형제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핏줄을 나눈 1천 7백만 북한 형제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민족복음화의 범위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 8월에 열리는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계기로 1천만 성도 확보와 선교 백주년이 되는 1984년에는 2천만 성도가 되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대회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활동도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선교는 한국의 예루살렘을 복귀하려는 노력이다.

한국교회의 시작과 부흥은 북한에서부터 일어났다. 1907년에 있었던 성령부흥운동, 1910년에 있었던 100만명 구령운동, 수년을 당하는 민족

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1920년의 백년전진운동, 1945년에 있었던 300만명 구령운동 등등은 모두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신앙운동들이다.

또한 한국 최초로 신학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목사 7인에게 안수를 베풀고, 이기풍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 운동이 시작된 곳도 바로 평양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출발점이었던 북한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니엘이 하루 세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우리도 북한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북한선교는 민족안보를 위한 애국운동이다.

남한과 북한의 싸움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기에 이전에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결이다.

공산주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이나, 평화적인 정치협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무장하고 완악한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녹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안다.

네째는 북한선교는 세계선교를 위한 터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 때에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나라로 삼으실 줄로 믿는다.

그런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터이니, 이 사명을 감당키 위해서도 북한선교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녘 땅에 잃은 형제를 복음으로 다시 찾는 일은 단순한 사명감이나 선교전략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선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골리앗 같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저 거인과 대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 담과 난월과 기름과 진액과 파를 쏟아 붓는 순교의 각오와 희생의 충성만이 북한선교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할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권 제 4호

통권 76호

월간 충현

— 4월호 차례 —

권 두 언	북한선교의 의의.....	주 간 · 2
이달의말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김창인 · 4
특집	/ 북한선교의 이모저모	
	· 잃은 형제를 위한 염원.....	편집부 · 6
	· 차량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조준상 · 11
특별기획	죽음 · 부활 · 재림.....	이승근 · 14
편집실칼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태용 · 16
찬송가감상	예수 부활했으니.....	김하진 · 16
책 정 보	3월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 17
책 소 개	신약개론(상·하).....	김석원 · 17
특별화보	새 창전 착공예배.....	편집부 · 18
보 고 서	동남아 선교현황보고.....	김영휘 · 20
선교월보	선교지소식 · 기도제목.....	해외복음선교회 · 26
구역소식	3월의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구역권찰회 · 28
주간의만나	시편 67편.....	김창인 · 30
교회소식		편집실 · 31
답 한 다	신앙 성장의 비결은.....	김재창 · 35
4월의행사		편집부 · 34
편집하고나서		편집부 · 34
표 지 설 명	/ 북한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통일촌에 있는 통일촌교회. 이곳에서는 개성을 건너다 볼 수 있다. 통일의, 잃은 형제에의 염원이 열매 맺혀거를.....	

나의
가
힘이
되
신
사
랑
여
호
와
나
이
여
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 17: 9-26〉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위에서 33년 6개월동안 계시다가 잡히시어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열한 제자를 앞에 불러 앉으시고 요한복음 14, 15, 16장의 고별설교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고마운 내용인지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 들여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1. 마지막 기도의 목적

땅 위에 모든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의 길이 빠르고 목적이 선택해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이 내 아들, 딸, 내 사업, 내 가정 등으로 나를 중심한 기도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데 열한 제자가 남아 있는 것이 위태로운 광야에 양 몇마리가 이리떼 속에 남아 있는 것처럼 무서운 지경에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 이 열한 제자를 영육 간에 보호하시어 악한 자가 손 못대도록 지켜 주옵소서”라는 열한 제자를 위한 축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욕심이 없는 깨끗한 기도, 의심이 없는 믿음의 기도, 원망이 없는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목적의 기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마지막 기도의 내용

(1)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이것을 크게 몇가지로 악한 모양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이 꼭 찬 세상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병난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주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가운데 독이 섞인 것을 먹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마시는 수도물의 근원에 무엇이 섞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비료를 통해 독소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 가운데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마시고 사는 공기는 가지 각색 공해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듣는 음파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말보다는 짹짹 놀라게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에는 보면 불쾌하고 가슴 아픈 것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에 걸릴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죄악이 꼭 찬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우리의 인격을 위해 보는 책 속에도 우리의 인격에 병을 주는 내용이 많이 있어 우리의 인격을 좀먹고 있습니다. 의인이 살기가 어렵고 의인이 병어리가 되어야 마음이 평안할 지경으로 말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 삽니다.

세째,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열번 신용을 지키고 열한번째는 큼직히 매어 먹을 사람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마음 놓고 믿겠습니까.

이런 험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첫번째 기도의 내용이 몸은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업은 악한 사람에게 이용 당하지 않고 인격은 악한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주옵소서입니다.

(2)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은 한국의 백성이,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물고 찢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해관계, 돈, 권세, 명예 등에 이끌려 자기의 허물은 거짓말 뒤에 숨겨 두고 남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낚는지 모르지만 자손만대를 멸망의 함정 속에 몰아 넣는 한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인물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죽으면 시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자는 성령이 떠나가면 영적 시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될 때에 누가 내게 손을 댈니까.

또한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는 한 가족입니다. 얼굴, 색깔의 차이가 없이 영원히 하나님 모시는 천국의 한 식구입니다. 신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죄와 구별되어 의를 따라가 죄악에 때문지 않은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나, 나라의 법이, 또한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게 우리를 비취주는 등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등불로 선악을 분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조심하는 신자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고마우신 기도입니까?

진리를 배운 사람이,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죄악에 때문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에 이긴 자가 자유, 생명, 재산이 있지 전쟁에 진 자는 자유를 잃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과 욕심을 이긴 자에게 거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지킨 사람만이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거룩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권세가 당당해도 권위가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권세가 없어도 실생활이 아름다운 사람의 말은 한마디 말이 가슴을 뚫는 실력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면 다른 사람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빛의 사람으로, 권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려고 합니다. 진리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4) 저희로 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인간들은 여러가지를 놓고 기뻐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장사하는 분은 돈이 은행에 쌓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쁨은 잠시 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놓고 기뻐하느냐에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자유세계에 살아야 자기의 배운 실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니 행복이고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품에 주소를 정해야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인격이, 지식과 건강과 재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박아야 생애수가에 뿌리 박은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그 꽃이 예쁘고 질고 아름다우며 열매가 충실하여 창고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들로 하여금 내 영광의 나라에 와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악에 때문지 않은 거룩한 기쁨을 가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든든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빛으시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만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피를 내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때문에 신자가 낙심합니까? 무엇때문에 신자가 가던 발걸음을 주저합니까?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날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를, 우리나라를, 우리 자손을 보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하여 살자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기쁨을 두고 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자신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남들에게 웃음의 꽃을 피워주고 후손들에게 풍년의 곡식을 물려 주는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은 형제를 위한 염원

편 집 부

□□□...북한선교가 시작된 지도 만 3년째에 접어 들고 있다. 처음에 북한선교를 시작한다고 할 때는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 됐으나, 이제는 북한선교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에 국제정세도 해빙 무드를 타고 중공의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북한선교의 가능성과 그 활동범위가 좀 더 구체화 되고 있다. 월간 중현에서는 본 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이 이 사장으로 수고하고 있고 또한 우리교회의 5대 목표중에 하나인 북한선교를 주관하고 있는 북한선교회의 그동안 진행사항을 알아보아 많은 교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며 북한선교 특집을 마련해 본다...□□□

1. 북한선교회 발족 경위

북한선교회가 발족되기까지는 오랜 기간동안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 1971년도부터 아세아복음선교회 임원이었던 김창인·정석홍목사와 백인빈장로는 대공선교활동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던 중 동남아 8개국과 유대관계를 맺기에 이르렀고 1974년 8월 5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4차 동남아 선교회에 참석하였던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을 위시한 구라파 및 중립국 여러나라 선교사들로 구성된 대공 지하선교단체와 유대를 맺게 되므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대공선교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어 당시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 중 몇몇 동지들로 성급히 현지에서 씨앗선교회를 발기하여 대공선교의 첫발을 내 디디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씨앗선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마침내 1977년 4월 29일 씨앗선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제 1회 북한선교회창립기념대회를 충현교회당에서 개최함으로 북한선교회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2. 북한선교회의 목적

북한선교회는 북한선교회 정관 제 2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북한선교회의 목적을 두렷이 하고 있으니

『본회는 무신론주의 공산당을 배격하고 그 마수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세계 인류의 자유와 진정한 진리, 사랑, 평화를 위한 북한선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반종교적 반도덕적 사상을 배격하고 북한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동족에게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여 인류의 자유와 평화의 구현에 적극 기여한다.

2)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의 자유 애호국가에 대한 무력 침략과 파괴, 음모를 규탄하며 기만 전술 등 여하한 유혹에 대하여도 선량한 국민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계몽 교육한다.

3) 국내의 복음 선교 및 대공지하선교활동

4) 기독교인의 연구와 생활화

5) 기독교인의 방향제시

6) 사회봉사활동

7) 국제기독교실업인간의 유대와 연합사업활동

8) 귀순용사 선교』

3. 북한선교회의 조직

북한선교회는 대공지하선교에 관심을 가진 국내의 여러 인사를 고문 및 이사로 모시고 그 밑에 국내 및 해외지부를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고 문 / 강신명 김익준 김장환 유상근 윤인식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북한선교회 서울대성회〉



〈이 성회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귀순용사위로회 -매월 세째주에 모인다〉

라서 해외 공산권선교지하단체들과 유대를 맺고 특수 인쇄로 된 성경을 특수한 방법으로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 방송선교사업

북한선교회는 방송을 통한 대북방송을 강화하고 그 매체로 극동방송 및 아세아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① 극동방송 (1188KHz)

매일 새벽 5시45분~6시(월.수.목.금.일)에 「북음의 메아리」란 제목으로 설교 및 찬송 공산권 소식 등을 방송한다.

② 아세아방송 (1566KHz)

매일 새벽 1시~1시5분에 성경본문을 천천히 봉독하여 듣는 사람이 받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의 성과는 목단강 근처에 사는 15세 소년이 편지를 보내 왔는데 신약성경을 전부 받아 쓰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3) 북한선교를 위한 대중집회

북한선교회는 북한선교를 위한 저변 인구의 확대 및 관심을 높게 하기 위한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 지난 1978년 2월 23~26일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집회를 개최하였고 각 지방을 순회하며 북한선교 집회를 갖고 회원을 모집하고 국내지부를 설치하는데 힘쓰고 있다.

1977년 서울 새문안교회에서의 집회를 비롯하여 1978년에는 부산, 대전, 수원, 마산 등 13개 곳에서 집회를 가졌고 1979년에는 정읍, 대구 등 4개 지방에서 집회를 가졌다.

4) 차량선교 사업

1979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선교회에서는 : 량선교 사업을 시작했다. 영사기 등 특수장비를 갖춘 차량을 준비하여 운전기사와 설교자, 영사기술자로 편성하여 시골에 가서 전도집회를 하며 북한선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특별한 전도 방법을 쓰고 있다. 이미 금년에는 3차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는 2주간 전도하고 1주간 쉬고 하는 방법으로 주로 충현교회 교역자들이 파송되어 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영화 필름 16개를 이미 미국에서 계약 계속 도착하고 있다.

5) 귀순용사전도 및 위로회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자들을 전국에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

서 초청, 위로회를 갖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자신과 국가와 민족에 더욱 소중한 삶이 되도록 권하고 있다. 이 모임은 이제 매월 세째주일에 충현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과회 및 특강시간 등을 갖고 상호 유대관계를 맺는 좋은 모임이 되고 있다.

6) 문서선교

대공산권 선교에 관계되는 체험적인 내용의 책을 펴내 공산권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그동안 5권의 책을 출판하여 시판하고 있다.

① 끝없는 가능 (한스크리스천지음, 정석홍·홍정수 옮김, 266페이지, 750원)

소련 및 동구라과 「성경밀수선교」의 생생한 실제 수기, 소련교회의 모습과 박해가 생생하게 담긴 책

② 붉은 대륙의 새벽 (사이러스홍지음, 김영국 옮김, 187페이지, 900원)

중공에서 지난 모든 세기에 이룩하지 못한 복음화를 무신론자 공산당 치하에서 이뤄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직접 섭리가 담긴 책

③ 아이다의 편지 (아이다지음, 김영국 옮김, 170페이지, 600원)

공산박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공개 투쟁하는 한 여성도의 기록.

④ 迫害前夜 (바실레아 슈링크지음, 김창배 옮김, 106페이지, 400원)

이제는 공개적으로 도전해 오는 악마의 세계 전략의 실재를 보이고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무서운 육체적, 정신적, 영적 박해를 예고하며 준비시키려는 의도로 쓰여진 책

⑤ 타는 풀무가운데서 (알렉크지음, 김영국 옮김, 21페이지, 100원)

공산당 박해의 실제적 체험수기.

이상의 책 외에도 「북한선교」라는 원보를 발간하여 국내외 선교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다.

7)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사 훈련 및 양성

통일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북한전도를 위한 전도요원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정선의 특수훈련장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지원자를 받아 신학 및 신앙훈련, 특수 훈련을 시켜 북한 전도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선교사로 양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일하고 있다.



〈6·25기념 통일기원예배 - 통일촌교회〉



〈차량선교사업을 시작 - 파송예배〉



〈북한선교회공로회원에게 주는 감사장〉

8) 휴전선 지역 교회 후원

통일의 염원을 간직하고 휴전선 지역의 교회를 지원, 관리하고 있다.

① 통일총교회

이는 총현교회의 개척으로 1977년 11월 19일에 헌당식을 가지고 설립된 교회로 북한선교회가 인수 계속 후원하고 있다.

② 대성동교회

비무장지대내 "자유의 마을"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북단의 교회다. 이처럼 휴전선 이북의 교회들을 지원, 관리하면서 통일의 소원을 한층 굳게하고 북한 선교의 사명을 더욱 고취한다.

5. 해외선교기관과 유대 및 해외지부

이사장 김창인목사는 북한선교회 발족 이후 매년 2~3개월씩 해외여행을 통해 공산권 지하선교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 우리 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북한선교회 지부를 설치, 현재 10개의 국제 지하선교단체와 유대를 맺고 해외에 9개의 북한선교회 지부를 설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제 북한선교의 열기는 전국으로,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처음에 시작한 미미하였고, 황당무계한 듯한 기분을 느꼈으나 이제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북한선교 사업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반응과 결과를 보지 못하면서 일해야 한다는데 더욱 힘들다. 그러기에 더 많은 경비가 들고 인력을 필요

해외교포 및 해외선교기관과의 유대수립

1. 대공지하선교단체와의 유대관계

국제 지하선교회 김창 인목사		세계 청년복음사공역 김 이진목사(총무)
유럽 담당 윌터 그라프목사		아주 극주 협회 카르만 목사(총무)
극동 담당 사이몬슨 목사		중국 신학연구원 조 지은 박사(총무)
M. E. S M. 박성 목사		기타 해외선교단체 보수교단



북한 선교회

2. 해외 교포 및 해외지부 관계

스페인 미혼 스 페인	영영목목사 중 국	소련 선교사 다 크라선 니 차로프 드미트리 알렉산
----------------	--------------	--------------------------------------

이 해외 집회 인도

1977. 9.13-12.17 유럽 이집트 북미 및 홍콩
1978. 6.6-7.27 대만 일본 중국 등지
1979. 8.20-10.25 남미 및 북미 지역

성과 - 공산권 지하선교단체와의 유대관계 수립
교포의 북한선교계몽에 참여 (1978. 10. 1979. 10)

① 해외 지부설립 - 9개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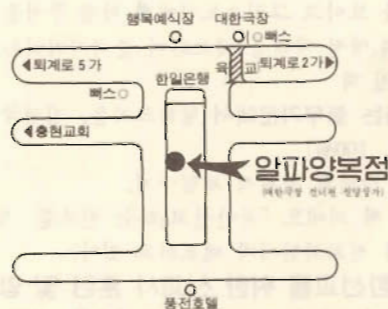
로 한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 힘써야 한다. 우리가 낙심치 말고 계속할 때 정말로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는" 유쾌한 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 선물용 티겔 발행
- ◎ 출장 주문 · 가봉 · 배달

알파양복점

김 은 호 장로



중무로 4가 125의 1 (대한극장 건너편)
진양상가 라열 152호
전화 261-2876

삼천리 오천만 내 민족에게 시온의 계절을 속히 주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속에

조 준 상 전도사

(선교부 부지도)

먼저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차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둘째는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의 전폭적인 후원과 자상하고 따뜻한 배려와 기도로 도와주시미요, 셋째는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북한선교회원님들과 충현교회 성도님들의 덕택인 줄 압니다.

한걸음 나아가서는 같이 동행한 김모세집사님의 불타는 사명감과 성실한 임무수행, 또 측면에서 열심히 후원한 이순전도사님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성대한 파송예배

출발할 때에 나는 세가지 크게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 하나는 성대하게 파송예배를 드려주니 한편으로 더 없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크게 예배를 드려주는 것을 보니 이 일이 참으로 막중한데 어찌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하나는 계속된 피로와 금식과 철야기도에다 독감까지 겹쳐 놓으니 극도로 쇠약해진 건강이 어찌 매일 수백리 길을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내가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에게 북한선교회의 취지와 하는 일을 자상하게 소개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무거운 책임과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파송함을 받는 나를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을 때 당회장 김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행20:17-24 말씀이 한없는 힘을 주었다. "옳지! 이 말씀 따라 일을 하자! 겸손과 눈물 그리고 모든 시험 참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되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자. 그리고 달려갈 길, 받은 사명, 나

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예배를 드리며 수없이 결심하며 그 결심 헛되지 않도록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였다.

성대한 파송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당회장 목사님의 분부에 나는 "지식도, 경험도, 건강도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맘으로 떠납니다.

지금 내 마음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바라봅니다. 저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차안에서 계획세우고

승리하고 오라는 뜨거운 염원의 손 흔들어 줌이 눈에 채 사라지기도 전에 차는 이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접친 피로에 약간 눈을 감고 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잠을 청했으나 닥쳐오는 일을 생각하니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 일을 계획하며 메시지를 준비하였다. 새벽 5시에 새벽기도 인도,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늦어도 4시30분에 기상하고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내용은 왜 기도하여야 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강론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북한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자.

그래서 6시30분까지 새벽기도를 마치고 7시30분까지 세면과 그리고 출발준비 완료하고, 7시30분부터 8시까지 차중에서 하루 일과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보자. 하루에 누가복음 두장씩 교대로 읽고 그리고 기도도 교대로, 예배 장소는 운전석, 참석자는 두명인데 인도자 한명인데 예배자 한명, 참 멋있고 진지한 예배일



(차량선교여행 파송예배를 마치고 출발하고 있다)

게다.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식사, 9시부터 11시까지 다음 장소로 자동차 여행, 11시부터 1시까지 전도훈련, 이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 재림이 임박한 때이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이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죄 지은 것 회개하고 주님의 마지막 부분 복음을 증거하자 라는 내용으로 마태복음 24-25장을 강론하자. 그리고 나서 오후 가두방송, 축호전도 방법을 교육하자.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식사 하고 2시부터 6시까지 가두방송 축호전도 시키고 나는 차 안에서 이미 마련한 찬송과 복음 전도설교를 하며 저녁집회 초대에 최선을 다하자. 6시부터 7시30분까지 저녁식사,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복음전도집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 이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영접하는 결심의 시간을 갖는 내용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8시30분부터 10시까지 순교보 영화 상영, 그리고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북한선교를 위한 부흥집회, 메시지 제목은 "어려운 때 일수록 뜻을 정하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을 소개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 개인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북한선교회가 조직된 이유와 하는 일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때 기독교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기도회원을 모집하자. 그리고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취침 준비하고 12시부터 4시30분까지 취침,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차는 이미 부산에 도착하였다.

계속되는 피로와 독감이 겹쳐

예정시간보다 1시간30분 늦게 도착하여 부랴부랴 저녁식사도 뒤로 미룬 채 집회 인도와 영화 상영을 시작하였다.

모든 것을 마치니 12시30분, 취침에 들어가니 구들장이 온 몸을 빨아 들인다. 내일 아침에 못일어나겠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일어났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죽는 연습, 아침에는 부활하는 연습이 실감이 난다. 계속되는 독감의 기침은 과연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더 힘있게 일어난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기침도 메시지 증거하려고 강단에 서기만 하면 딱 멈춘다. 이상스럽게 고장 없던 영사기가 원인 모르게 고장이 날 때 기도하면 누가 고치는지 신기하게 돌아간다.

동행하던 김모세집사님의 치질이 이상스럽게 나아졌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겹친 피로와 계속되는 설교와 강의에 기승을 부리던 독감 기침에 피가 넘어왔다.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당회장 김목사님께서 언젠가 교역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혜성처럼 떠오른다.

"설교하다 목구멍에서 피가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피까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면 서도 억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하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이것도 5일째 되니 완전히 나아졌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겹치는 피로는 짜증스럽고 저

벽에는 기어 들어가다시피 잠자리에 들어가며 “주여 내가 피곤하여 죽겠나이다”하며 짜증스럽게 투덜떨 때 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신 주님이 생각났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 “코에 숨만 쉬면 되지요”라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떠날 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드린 기도,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고 사명과 달려 갈 길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생각났다. 다시 엎드려 “주여 힘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 갔다. 갈수록 힘있게 메시지가 증거 되어 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 앞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위독 소식을 듣고

7일째 되는 날이다. 거제도 최남단 조그마한 어촌에 가서 일과를 진행하는 중 새마을회관에서 방송을 통하여 “서울에서 오신 손님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급히 상경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2년전 병고에 쓰러지신 어머니, 18세에 시집와서 20년만에 첫아이며 첫아들인 나를 낳아 한평생 아버지 일찍 여의고 기르시기에 수고하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캄캄해져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고 보니 울음이 앞서기 보다는 올라갈 것이냐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가 문제였다. 조용히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였다. “하나님 어느 일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까?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일을 결정하는데 지혜를 주옵소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니 나에게 선행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 내가 올라간다해서 돌아가실 어머니 아니 돌아가실 리 없고 아니 간다해서 반드시 돌아가실 리 없고 오직 생명은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과 나는 장차 선교사 지망생인데 이보다 더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반면에 사탄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 분하기 그지없다. 또 나를 보내놓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만두고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니 그토록 애지중지 기르던 자식이 보지 못하는 데서 돌아가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재발 제가 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생명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병들어 출발했던 나를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였고, 연약했던 나를 강건하게 하였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친히 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할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나에게에는 없다. 앞으로 북한선교회에 더욱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두산 소나무 찍어 성전 짓고 압록강 수력발전으로 전등불 밝혀 놓고 할렐루야 시온의 제철을 맞이할 때까지 힘있게 확장되길 기도하면서 먼저 다녀온 사람으로서 몇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보다 발전을 위하여

첫째, 다양한 영화 프로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가지고 간 순교보는 이미 상영된 테도 있고, 또 놓여촌에 보급된 TV로 인해 다양한 영화 프로 준비가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일 한 교회보다 이틀에 한 교회씩 하는 것이 감당하는 사람이나 해당 지교회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북한선교회에 알맞는 전도지를 제작하여 전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네째, 전도대원은 3~4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된다. (1명은 기사, 1명은 메시지, 1명은 전도훈련 및 가두방송, 1명은 찬양전도)

다섯째, 메시지는 출발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자유자재로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겠다. 왜냐하면 대상이 지식인과 무지인, 그리고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며 때로는 불이 없는 데서 하는 경우도 있기에 원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하여야겠다.

여섯째, 어디를 가나 인근 파출소(지서)에 신고하고 동네 이장에게 인사(사전 양해)를 하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좋다.

이상의 것을 참작하고 준비, 진행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생각된다. *

죽음 · 부활 · 재림

이 승 근 목사

(정년부 지도)

죽음

1. 죽음의 성경적 정의

죽음이란 생물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호흡의 정지 또는 모든 신체의 세포활동의 정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죽음의 정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즉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영원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 육체적인 죽음이란 영혼과 신체의 분리요 영적인 죽음이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이요 영원적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불신자의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여 최종적인 고통을 겪게하는 것을 말한다.

2. 죽음의 원인

죽음은 우연적으로 또는 자연적인 순리에 따라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범죄한 결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 : 17) 라고 한 경고의 말씀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고 한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가 전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그 자신과 모든 후손에게 전가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한다. 그같은 사실을 확인해 보려면 스스로 범죄함이 없는 영아들이 고통과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3.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가 청산되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실효 불가능한 것인가? 성도는 예복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왜 들려 올라가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 : 1 ~ 2; 고전 15 : 55)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연단과 징계의 정점이 라고 보아야 한다. (히 12 : 6; 서 116 : 15)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으로 인한 이별, 질병과 수난 등의 체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교만한 자는 겸

손하게 되고 육욕이 억제되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들이 하늘로 향하게 되며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 특사를 받은 죄수가 감옥에 있어서 출옥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엔 이미 죄수가 아닌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그의 영혼을 성화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준비의 과정일 뿐이지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엔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한 곳이 많이 나온다. (마 27 : 52; 요 11 : 11; 행 7 : 60, 13 : 36; 살전 4 : 13; 뱀후 3 : 4)

부활

1. 구약에서의 부활사상

죽장시대에 부활에 대해 확실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 있으니 그는 아브라함으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믿었다. (히 11 : 19) 또 구약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일조와 함께 잔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음도(창 47 : 3; 신 31 : 16) 부활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는 묘사들이요 특히 욥의 유명한 진술에서 (욥 19 : 25-27) 매우 명백하게 표현되었고 이사야서에도 자세히 언급하였다. (사 26 : 19) 이같은 부활사상은 사두개교인만 제외적으로 믿지 않았을 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

2. 신약의 부활사상

신약성경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구약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 기록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정에 달한 것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요 약속이다. 그리스도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교리에 대해 대항하자 구약에서 인출해서서 답하신 것 외에(마22: 23-33; 출3: 6) 『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 29)라고 더욱 분명하게 언급하셨다.

그밖에도 여러 곳에서 언급하셨다. (요6: 39, 40; 54, 요11: 25) 또 바울도 부활의 진리를 극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신약서신들 중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진지하게 다루었다. 특히 고전15장에서 부활의 사실을 자세히 논증하되 먼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였고(1-12) 거기에 근거하여 성도의 부활의 가능성과 확실성을 말하였다. (13-34)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부활체의 성질을 논하여 부활반대설의 무익함을 드러냈다. (35-58) 또 사도요한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할 것과 마지막 때 즉 심판 전에 모든 인류의 부활이 있을 것을 가르쳤다.

3. 부활의 성질

성경에는 영적 부활을 말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요5: 25; 엡5: 14) 그러나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요, (고전15: 20, 21)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나신 자」(골1: 18; 계1: 5)가 되었다는 말씀에 입각해 보면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육체적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체가 돌

아가시기 전의 육체와 같은 것임을 제자들에게 명확히 증거해 보이신 것은(눅24: 36-43; 요20: 20) 성도의 부활체도 그와 같은 것임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약해서 범죄하던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15: 50) 한 말씀은 현재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강하고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것을 가리킨다.

4.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의인과 악인 모두가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5: 29)라고 하며 부활의 모습을 달리 말씀하셨다.

재림

1.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재림도 예언대로 성취될 것이다. 구약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뿐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도 몇 구절 언급하고 있다. (욥19: 25, 26; 단7: 13, 14; 스4: 4; 말3: 12) 또한 신약에서는 더욱 많이 언급되어 이 진리가 318번 즉 매 25절에 한번씩 언급되어 있다.

특히 예수님의 비유들과 예언에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마24: 25; 막13: 21; 눅21: 2) 또 사도 바울의 최초의 저서인 데살로니가전후서에서 재림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의 최종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는 재림 후 받게 될 의의 면류

관을 얻을 소망으로 종결하고 있다. (딤후4: 8) 요한은 계시록의 많은 환상들로 신약을 종결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하는 재림의 약속과 기도로 문장을 마치고 있다. (계22: 20)

2.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된다.

(마24: 14; 막13: 10; 롬11: 25)

나. 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회개하게 된다. (슥12: 10-14; 13: 1-6; 고후3: 15, 16, 롬11: 25-29)

다.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게 된다. (마24: 9-12; 21-24; 막13: 9-22; 눅21: 22-24)

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마7: 15; 24: 5, 24; 막13: 21-22; 눅17: 23; 살후2: 4)

마. 각처에 전쟁, 흉년, 지진이 있다. (마24: 6, 7; 막13: 7, 8)

3. 재림의 양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언한 내용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즉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1: 11)라고 하였다.

가.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하신다.

나. 부활하셨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신다.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

라.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재림하신다.

마. 영광적으로 그리고 승리적으로 재림하신다.

바. 종말적이고 완성적으로 재림하신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 태 용

요즘 일부 대학의 혼란은 캠퍼스 내의 문제에 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불과 20여년간 지속된 정치체제가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와 행동을 저렇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구나 생각하니 겁이 나기도 한다. 경직된 체제 속에서 내 자신의 인격에 때 묻히지 않고 의연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대학 중에 기독교 대학과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기독교인인 대학이 상당수 끼어 있음을 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직업(또는 사업)에 귀천이 있을까만 특히 육영사업은 크리스찬 독지가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손 댈 수 있는 뜻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받는다. 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 인간을 교육해 내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교육이념이요 목표인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지상을 통해 보면 많은 부정과 비행으로 지탄의 대상에 오른 것이 바로 기독교와 유관한 대학들이다.

또 체제와 제도 속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 구현에 침묵한 기독교인 교수들이 적잖이 있음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운명적으로 오래 갈 수 없는 한 시대를 지조있게 살지 못하다가 학생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된 것이다.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는 것이 성경 속에 제시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어느 누구보다도 깊게 한다는 분들이 욕심에 이끌리고 명예에 눈이 어두어 잠시 죽고 오래 사는 성경의 원리를 저버림으로써 오늘의 민주화 시대에는 설 땅이 없어져 버렸으니 안타깝다 못해 통탄스럽다.

교회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주께서 내일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는 시간 개념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공간 개념을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교육시켰으면 이 땅의 모든 영역은 보다 천국적이고 전도의 문도 보다 넓게 열려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예수 부활했으니

(새 17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이다. 그것은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리가 승리한 역사적 사실이며, 아울러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과 구원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어찌 즐거워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 찬송은 요한·웨슬레(John Wesley)의 동생인 찰스·웨슬레(Charles Wesley, 1707-1788)가 작시한 것이다. 그는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작시했는데 사실은 이 찬송시가 형의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곡이다. 이 찬송시는 그가 1739년에 작시한 것인데 원문에는 음절 끝부분에 있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다. 그러나 이를 편찬하는 사람이 부활절 찬송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란 말을 첨가해 붙인 것이다.

이 찬송은 4/4박자로 된 밝고 경쾌한 곡으로 작곡되었다. 이 찬송은 로버트·윌리엄(Robert Williams)이 1817년에 작곡하였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활을 깊이 체험하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격하여 불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이다.

이번 부활시에는 정말 이 찬송을 통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겠다. 그리고 “길과 진리되신 주”를 “항상 따라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 아-멘!

김 하 진 목사 (성경학원·성가부지도)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3월중에 들어 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참고서

- ① 성서백과대사전: 2권, 성서교재간행사편, 1980, 26cm, 936p.
- ② 성서대백과사전: 정인찬편저, 기독교지혜사, 1980, 26cm, 938p.

2. 주석류

- ① 구약성경주석; 여호수아, 시편, 존·칼빈저. 성서교재간행사, 1980, 23cm

3. 설교학

- ① 스펔전의 설교학; 스펔전, L. H저 김병로 역 신앙애출판사, 1979, 629p

4. 양서

- ①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North Carolina Bible House, 1976, 26cm.

II. 기증도서

- ① 주일학교 운영안; 충청교회교육위원회. 1980, 200p. <교육위원회 기증>
- ② 민들레의 부활; 박추지저. 소망사, 1979, 21cm 237p. <박추지선생 기증>
- ③ 통일문답; 국토통일원. 1979, 163p. <이병학 집사 기증>
- ④ 생활의 발견; 임어당저. 청구문화사,
- ⑤ 속·생의 한가운데; 루이제틴저저. 문예출판사, 1969.
- ⑥ 사회과학의 방법론; 이규호편저. 현암사, 1973, 277p.
- ⑦ 언어란? (What is language?) 김권호편저. 고려대학교 출판사, 1975.
- ⑧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다; 트로비쉬, 월터저. 배한국역. 컨콜디아사.
- ⑨ 이상근주석; 사도행전, 고린도서, 욕중서신. 이상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이상 정홍식집사 기증>

* 책 소개 *

G 그레삼 메이천저, 김효성역

신약개론 (상·하)

성광문화사 · 1980 · 각200 페이지 · 각3000원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의 본 뜻을 이해하고,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를 그대로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만한 쉽고도 유익한 안내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 불효불굴의 근직한 학자로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영도하였고, 장로교 내의 정통신학 운동을 지도 하였고, 전 생애를 바쳐 시종일관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적수인 근대주의에 항쟁한 학자인 그레삼 메이천 (G. Gresham Machen) 박사의 「신약 성경 시대의 문헌과 역사」가 번역되어 신약개론이 나오게된 것을 기쁘고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신약성경을 바로 이해 하는데에 도움을 주며 본서의 기독교 문헌과 역사적 연구는 우리 모두를 살아가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에 대한 단순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의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할 것이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6장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

7-16장은 사도행전의 해설을 통한 기독교 초기의 역사들

17-26장은 바울서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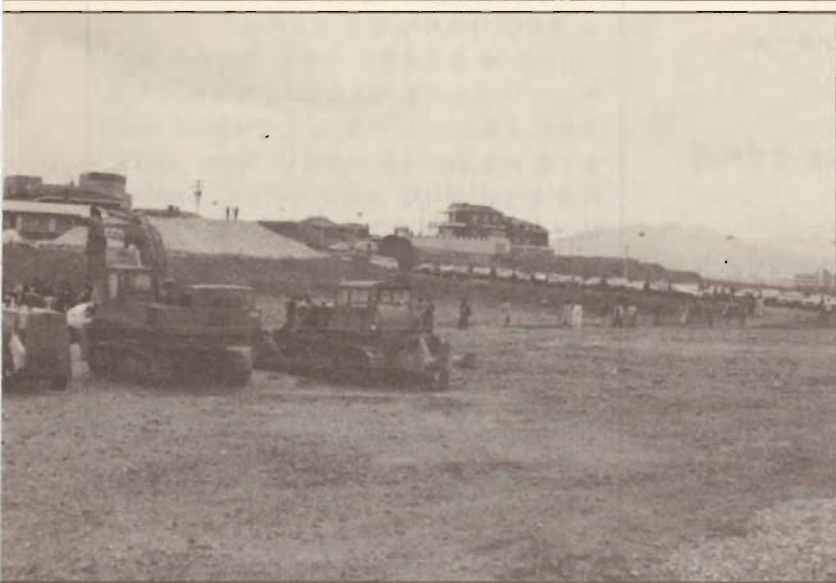
27-31장은 사복음서들을

32-36장은 공동서신들을

37-39장은 요한계시록을

40-52장은 사도시대 교회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현대교회의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각각 다룬 특별한 짜임새를 갖춘 신약개론이다.

김 석 원 강도사 <고등부지도>



▲ 시간이 되자 줄이어 찾아오는 교인들
▼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새성전 건축을 다짐했다.



특집화보

4월 8일

새성전

논현동

▼ 예배에 참석한 박윤선박사는





오후 2시

작공예배

장에서

특집화보



▲ 장로님들을 위시한 1000여 교인이 참석했다.

▼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간절한 기도시간

축복기도 하셨다.





활발한 동남아의 선교현장

김 영 휘 전도사

(해외복음선교회 · 선교부 지도)

서 언

본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지 벌써 십년이 지났고 지금은 열군데에 여덟분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주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힘닿는 데까지 애써 오고 있다. 그러나 본 선교회가 현지 선교사들과 국내 교인들과의 중간적인 가교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오고 있던 중 이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본 선교회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온 교회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지역만이라도 선교현지를 순방함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앞으로의 이 지역에 대한 선교대책을 구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약 2개월동안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펍유익한 기회였고 앞으로의 선교정책에 많은 참고가 될 줄 믿어 여기에 보고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방문한 지역별로 순서로 정리하고 각 지역에서의 방문목적과 방문기관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해 보고자 한다.

홍 공 (1980. 1. 7 ~ 2. 1)

1. 방문목적

- 1) 공산권선교(중국, 만주, 북한)현황파악 및 그 협의를 위하여.
- 2) 중국선교연구기관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 3) 중국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총현교회)의 준비를 위하여

2. 방문기관

1) 홍콩한인연합교회(홍 종만목사)

본 교회에서는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교포(약 2,000명)들과 중국선교의 준비와 활동을 위해 1976년 9월23일에 홍종만목사를 파송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홍목사께서는 지금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인교회 목회와 한인 학교운영, 지하철공사직원들에게 성경공부도 이외에 중국선교를 위해 그는 중국에 성경 및 경전서적 우송하는 일, 중국성도 및 만주한인 성도들과의 서신교류, 중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여행비지급 및 중국선교기관들과의 유대강화 등 매일매일 바쁜 일과를 보내고 계시다. 또한 금년부터는 중국선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중선교협력 홍콩센터」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이를 통해 우선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 중국선교에 많은 관심 있는 교회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리라고 믿는다.

2) 국제전신보세포도회(엽 영택 목사)

78년도에 한국에서 엽목사를 만나 이미 구면이라 처음 방문했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선교활동은 중국에 보낼 성경 및 기타 문서의 발행과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내가 홍콩에 머무른 동안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므로 그 보고를 들을 수 있었다.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그는 중국내에 광둥과 북경과 상해등을 여행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고 특히 작년 11월에 상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한인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엽목사의 보

고에 의하면 현재 북경교회에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며 100명 정도의 성도가 참석하여 전에는 목사의 설교가 허락되지 않았었는데 작년 9월부터 비로소 설교가 허락되었다고 한다. 성도들은 북경의 성서공회에서 발행된 것으로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보고, 돌아갈 때에는 반환하고 있다고 한다.

상해에서 방문한 교회는 moore memorial church (沐恩堂教會)로서 평소에는 학교건물로 사용되고 있고 주일에는 예배처소로 모이는데 지금 2부로 예배(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를 드릴 정도로 수천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교회는 작년 9월부터 이미 시작한 바 있는 교회이다.

3) 마카오선교교회

홍목사님, 엄목사님과 북한선교회의 총무이신 백인빈장로님과 함께 마카오를 방문했다. 작년부터 중국선교를 위한 홍콩 다음의 전진기지로 마카오 지역을 결정하고 개척교회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홍콩에서 정기여객선(hydroplane)을 타고 1시간정도 달리면 마카오에 도착한다. 여행하기 전에 물론 입국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되고 특히 한국인에게선 신변상 위험지대이므로 사전에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고 입국하는 것이 좋다.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적절한 곳이 생겨 계약을 하였다. 지금 마카오는 중국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내려오는 난민들의 공식적인 통제로 매일 평균 5,000명 이상 넘어 온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일어나고 있고 집세는 날마다 뛰어들고 있었다.

교회장소에서 5km안되는 거리에 중국대륙이 있고, 아파트건물의 1층과 2층 모두 약 70평 정도의 장소로 매우 좋은 곳이었다. 이제 흑암의 대륙 중국을 향하여 바로 가까운 곳에서 복음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은 장소를 결정하고 중국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곳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홍콩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마카오선교교회는 오는 3월 8일에 창립예배를 갖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날부터는 중국선교연구기관들을 한 주간씩 매일 근무함으로써 그들의 선교활동의 현황을 살피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협의를 하였다. 방문기관은 다음 세 기관이었다.

4) 중화신학원(조나단 차오 목사)

차오목사님도 역시 한국에서 여러번 만난 일이 있으므로 우리는 곧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직원이 열명 정도 되는데 주로 문서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중국교회를 위한 기도문과 중국교회연구는

문들과 소책자 등을 직접 발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매일 읽으면서 현재의 중국의 종교정책과 교회현황과 선교대책에 대한 깊은 연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와 만주 및 북한선교를 하려면 이 선교기관과 같이 깊은 연구와 정보의 자료를 통하여 소리없이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중국 선교를 위해 여러 선교기관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했다.

5) 아시아 선교회(폴 카우프만 박사)

이 선교기관도 중국선교를 위해 역시 문서 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송 선교를 위해 자체 스튜디오시설을 갖추고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매우 놀랐다. 문서로서는 성경, 찬송가, 전도지, 경건서적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서를 직접 발간하여 중국에 보내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으로는 성경해설, 경건서적낭독, 영어학습 등을 제작하여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일 방송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중국성도들로부터의 응답의 편지가 매일 평균 200통 이상이나 오고 있었다. 이 선교기관은 약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로 구분하여 중국선교를 위해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카오 개척교회 건물앞에서—

홍종만목사(우)와 필자)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절실히 느꼈다. 30명의 직원 가운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국에 입국 가능한 사람들이 6명이나 되었고 이 가운데 한 사람은 금년 4월에 또 다시 중국에 들어가므로 그에게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 줄 성경 20권을 전달하면서 부탁을 했다. 이 선교기관은 중국선교 이외에도 기독교 교육을 위해 교재 및 여러가지 자료들을 제작하여 기존교회의 주일학교 사업에 측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6) 복음증주협회(福音證主協會)

이 선교기관내에도 여러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중국선교와 주일학교분야로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고, 중국선교를 위하여 별도로 중국연구센터(China Research Center)가 조직되어 이를 통해 중국 선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다. 주력하고 있는 것은 역시 문서선교로 성경, 전도지, 훈련교재, 경건서적, 주석류 등을 직접 발간하여 보내고 있었다.

이상 홍콩에서 복음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기관 3곳을 집중적으로 매일 근무하면서 중국선교의 현황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들 선교기관들은 현단계에서는 주로 문서선교와 방송선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울러 언제든지 직접 중국에 들어가 성도들에게 성경 등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수시로 중국교회의 현황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입수하여 선교대책을 언제나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3. 방문결과

- 1) 홍콩한인교회의 부교역자를 속히 파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2) 마카오선교교회에는 우선 영업택목사님이 전담하기로 했다.
- 3) 중국선교연구기관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기로 했다.
 - ① 선교자료 제공
 - ② 상호 영적인 교제관계 유지
 - ③ 앞으로 중국선교현신자들의 연수훈련을 위해 단기방문계획 허락

태 국(1980. 2. 1~2. 8)

1. 방문 목적

- 1) 한인교회 현황과악을 위하여
- 2) 태국 현지 교회 현황과악및 선교협의를 위하여
- 3) 캄보디아 피난민수용소 방문을 위하여

2. 방문기관

1) 방콕한인연합교회(김정웅목사)

동·서선교센터(조동진목사)의 후원으로 방콕에 김정웅선교사가 지금 한인교회와 현지선교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도 파송하고 있는 정승희선교사(왕십리교회후원)도 만나 보았었다. 섭씨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사역에 힘쓰고 있는 두 분 선교사를 만나 태국현지 선교에 대한 여러가지 선교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동안 의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방콕 시내만도 2만개 이상의 절이 있는 불교의 나라 태국, 지방에 가면 곳곳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이 있고, 집집마다 수호신이 있는 이 우상의 나라 태국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선교사와 함께 버마국경선 가까이 살고 있는 카렌부족 선교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였다. 그들에게 기도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었고 둘러보면서 현지인들에 대한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제대로 교회건물도 없이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고, 성경과 찬송가도 제대로 갖고 있지도 못했다.

그런데다가 태국교회를 지도할 만한 교역자가 너무도 부족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육적으로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태국선교의 지름길은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길이라고 느껴졌다.

2) 캄보디아 피난민 수용소

홍콩에서부터 태국에 방문할 경우 피난민수용소를 꼭 방문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태국에 와서 알아보니 그 곳은 안보상 위험지대이므로 가기가 무척 힘든 곳이라 해서 사실은 갈 생각도 못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가는 사람을 만나 피난민수용소에 방문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통해서만 전해 들었던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이래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린 캄보디아인들이 조국을 버리고 남의 나라인 태국으로 넘어와야 하는 안타까운 고사하고 그 생활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캄보디아와 태국사이의 국경선에 집거하고 있는 난민들의 수효는 공식적으로 100만명 이상이나 된다고 하며 그 중 10만명을 수용하는 곳에 방문해 보았다. 유엔기구를 비롯하여 여러나라로부터 구호 물자를 지원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정

도로 구호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 이들과 하루밥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다. 구호기관들을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묻기도 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얼마되지 않은 곳에 캄보디아 공산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임시정부(과거 론놀대통령의 정부)가 있는 곳도 방문하여 그들의 형편과 주장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금도 유엔과 여러 민주진영 국가들에게 자신의 독립권과 권리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도 피난민들과 다름없이 비참한 생활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겠다고 보았다. 캄보디아 피난민 수용소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를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임 세종씨라는 한국인으로서 빌리그래한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고아사업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공산화된 국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같은 기회까지 이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다시 한번 찬양을 돌리었다.

싱가폴 (1980. 2. 8 ~ 2. 22)

1. 방문 목적

- 1) 싱가포르 한인교회설립 현황
- 2) 선교후보자 훈련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2. 방문기관

싱가폴은 동남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으로 국제도시로서 번화한 곳이었다.

동남아 여러국가중 가장 행정이 가장 행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거리마다 가로수와 잔디가 있는 공원이 많고 매우 깨끗한 나라였다. 이 지역에 우리 한국인교포가 약 700명 살고 있으며 교인은 약 40가정 된다고 하는 데 아직까지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성도의 가정에 초대받아 예배를 인도하였고 지금은 한인교회설립과 동시에 교역자 초청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왔다. 싱가폴은 지역적인 면에서 동남아의 요충지이며, 여러 선교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곳에 올 교역자는 한인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파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싱가폴에 방문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선교사 후보자들을 훈련시키는 선교기관들을 방문하여 견학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음력 설(2월16일) 전후로 일 주일이상이나 공휴일이었으

므로 시간이 부족해서 처음에 방문하려고 했던 여러 선교기관들을 취소하고 가장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 해외선교회(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를 집중 방문하였다. 때마침 그 기간이 후보자들을 위한 훈련기간이었으므로 함께 참석하여 얼마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내가 선교업무를 그동안 해 오면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가장 절실하고 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선교 후보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훈련코스가 전혀 없다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차에 이번에 이와같은 훈련기관을 방문할 수 있었고 또한 때맞춰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해 두셨던 것으로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해외선교회(O.M.F.)에서는 일년에 3번 훈련과정을 두는데 1번에 2개월씩 현지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필수과목들을 가르친 후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O.M.F.를 거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무려 9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한국교회에도 말로만 선교한다고 소리내지 말고 이들과 같이 자격있는 일꾼들을 착실히 키우는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에 큰 문제점과 제한이 닥쳐올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면서 우리교회가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3. 방문결과

- 1) O.M.F.와의 계속적인 유대관계수립.
- 2) 한국교회(중현교회)의 선교후보자들을 해외선교기관에서 초청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 아직 문이 닫혀있는 상태〉

1. 방문목적

- 1)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방문을 위하여
- 2) 인도네시아 선교현장방문과 향후 선교 협의의를 위하여

2. 방문기관

1)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서만수선교사)

서만수선교사님은 1971년 9월 9일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본교회에서 파송하였었다. 서목사님과 정영옥전도사님의 뜨거운 열정을 받으며 이름만 듣고 사진에서만 보았던 선교센타를 방문하여 그 곳에 숙소를 정하고 주일에는 자카르타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한인교인들 몇 가정을 심방하면서 그들의 정성스런 대접을 받았다.

현재 서선교사님은 한인교회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글지역 여러 곳에 19명의 현지 전도인을 파송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현지선교를 위해 힘쓰고 계시다.

또한 일년에 2, 3회씩 이곳들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비행기로 6시간 혹은 8시간 이상이나 날아가야 하니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넓은 선교지역인가를 짐작할 수 있고 아울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재정과 정열을 쏟아야 되는 지역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정글 선교지역 현장까지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서선교사님의 순회일정을 이미 사전에 통보된 후라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그 대신 현지선교에 대해 많은 시간동안 서로 협의할 수 있었다. 서선교사님은 지



〈중국의 가정교회—찬송을
종이 쪽지에 적어서 사용하고 있다.〉

금 선교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비자연장을 받아 81년도말까지 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는 비록 현재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무척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데 전념할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서선교사님이 정글선교를 최대한 기울일 수 있도록 한인교회를 전적으로 맡아 줄 교역자를 한 가정 더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목사님과 함께 반둥시(아시안국제회의가 자주 열렸던 곳)를 방문하고 시골에 몇 군데 방문하여 현지인들의 사는 모습들을 살펴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회교국가로서 곳곳마다 회교사원이 있고 새벽마다 마이크를 통해 코란경을 읽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적도부근이라 뜨거운 열대성기후와 호전적인 회교도들의 예고도 없는 위협과 화산 폭발이 여전히 터지는 이곳 인도네시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바쳐야 할 각오가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또한 너무나 방대한 지역이므로 이곳에는 보다 많은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인 것이다.

서목사님 내외분들과 작별을 하고 2월29일 자카르타공항을 출발하여 홍콩에서 하루 머무르고 3월 1일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방문지마다 부족함 나를 위해 여러모로 보살펴주신 성도들에게 지상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결 언

이번 동남아를 순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선교문제에 대해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기울이면 좋다고 생각된다.

1. 선교행정의 전문화

선교도 하나의 사업이므로 이를 효과있게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체계화 시켜야 될 것이라고 본다. 선교사무의 전문화를 위해 한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배려와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낌없는 인적구성을 배치하는데 투자함으로써 계속 선교 업무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선교의 기본정책수립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본정책이 있듯이 해외선교업무에 있어서도 성경에 입각하여 기본정책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선교지 현황의 변동에 따라 현지선교정책이 수시로 변동될 수도 있으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떤 때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교의 기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선교자료실 설치문제

선교사업은 시시로 변하는 해외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선교지역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의 정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에 대한 선교정책을 세우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자료실을 속히 설치하여 앞으로의 선교정책과 훈련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4. 선교후보자 훈련센터 건립문제

이번에 내가 가장 관심을 둔 점은 바로 이 문제였다. 한국교회의 선교사를 요구하는 곳은 많고, 이제는 재정적인 후원도 가능하나 마지막에 가서 귀착되는 문제는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선교후보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필요할때면 즉시 파송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평소부터 많이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선교사업의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이번에 O.M.F.를 방문한 결과 이 점이 더욱 절실했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어졌다. 마치 우리나라 이조시대 선조대왕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곡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선교사업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물양성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이 지상을 통해 나는 우선 임시적으로나마도 선교후보자들의 훈련을 위한 단기훈련센터를 건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1) 장소: 서울 근교의 출·퇴근이 가능한 가까운 지역의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별장을 매입하거나 우리 기도원의 목사관(출·퇴근 가능할 수 있게 버스 운행할 것)을 이용하여 선교후보자들을 1년에 2

~3회 모집하여 2개월 내지 3개월을 집중시켜 훈련 시킬것.

2) 훈련시간: 아침에는 각자 직장이나 학교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선교센터로 퇴근하는 시각부터 구체적인 선교훈련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활을 통한 선교훈련으로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받게 함으로 현지에 가기 전에 철저한 적응훈련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3) 훈련내용: 선교사로서 꼭 알고 익혀야 될 기본적인 과목으로 O.M.F.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교과과목을 그 훈련내용으로 우리 나름대로 별도로 교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훈련장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선교학을 이론적으로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훈련장사가 큰 문제이나 우선 선교적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현지의 선교사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국내에서 선교행정담당자로 후보자들을 키우는데 일생을 투신할 사람으로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12제자를 3년의 공생애 기간동안 같이 생활하시면서 지도하신 것처럼 물론 선교이론에도 밝은 사람이면 더욱 좋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면 안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행하여 선교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지에서 복음들고 싸울 수 있는 전사(戰士)들을 정상시에 많이 배출해 놓으면 언제 어느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역에 즉시로 파송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믿는다. (*)

품질 보장과 신용으로 봉사하는

제일모직 전문 판매점

태 일 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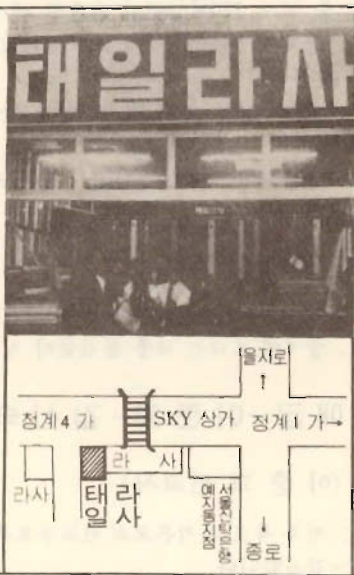
◎ 취급품목

- 고급 순모 복지
- 모 혼방복지
- 숙녀 복지

대표 이 태 송 집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220

(전화 261·5786)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공한미작

* 기도제목 *

1. 금년 목표인 오지지역자 30명 파송할 수 있도록
2. 적절한 부교역자가 선발되도록

홍콩-홍종 만선교사

1. 인도네시아 선교헌금 송금하다.
2. 마카오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3. 중국선교연구기관에 선교보조금 지원
4. 마카오지역 피난민 구호금 전달
5. 다음과 같이 중국의 한인성도에게 4월초에 전달할 예정임.

- ① 천진-카세트 설교테이프
- ② 상해-녹음기, 성경, 카세트 설교테이프
- ③ 북경-성경 및 찬송
- ④ 심양-녹음기, 카메라, 성경, 찬송가, 카세트 설교테이프

이상을 위하여 각종 대금 60만원과 여비조로 60만원 등 합계 12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6. 중국의 한인성도들에게 “샘터”(신앙서적)지 300부 발송예정
7. 중국선교를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해 자료 제공
8. 4월15일부터 21일까지 임승원목사를 모시고 부흥회와 수양회를 할 예정임

* 기도제목 *

1. 한인교회의 부교역자 초청문제를 위해
2. 중국에 보내는 각종 물건들이 잘 도착되도록

애굽-이준교·김신숙선교사

<이준교 선교사>

1. 전북 목포의 시온교회 선교부로부터 성탄선물 접수-감사합니다.

2. 본부에서 발송한 성경16권 접수.
3. 아메리칸대학 연수원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음.
4. 카이로한인 연합교회, 헬리아 폴리스 가정교회, 동산토건 살렘현장 예배인도
5. 애굽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함.
6. 성경통신강좌를 배부함으로 성경훈련시키고 있음.
7. 카이로 한인학교 운영.
8. 카이로의 유적지 및 성지답사 안내.
9. 애굽복음주의 사회사업기관을 방문하여 매월 미화270불 지원키로 함.

<김신숙선교사>

1. 신학교에서 문서선교에 힘씀
2. 시내산(호렘산)을 답사
3. 다음과 같이 선교비를 정히 영수함
 - ① 임현덕장로: 미화2,200불
 - ② 나성빌라델피아교회의 김수정집사: 미화 300불
 - ③ 김의환목사: 미화 300불
 - ④ 이현실권사: 미화 70불
 - ⑤ 이종표목사: 미화 1,100불 (3월분)
 - ⑥ 서만수선교사: 미화 500불이상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고 이연호선교사 기념장학금으로 4명에게 미화 300불 지급, 기념도서거금으로 미화 1,000불 받음

* 기도제목 *

1. 애굽선교를 위하여
2. 두 선교사의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교육문제를 위하여

서독-육호기선교사

1. 3.1절을 기해 민족복음화와 개인의 심령부흥을 위해 회개와 금식기도의 날로 정하고 3월 3일까지

금식기도를 함

2. 하나우 한인교회

① 기센지역 순회예배를 드리고 전도의 좋은 결실을 맺음

② 춘계 대심방 실시

③ 성찬식 거행

④ 성경암송대회 실시 ~야고보서 전장

3. 뷔즈부룩한인교회

① 성례식 거행

4. 비스바덴한인교회

① 성례식 거행

* 기도제목 *

1. 새 교회의 부흥을 위해

2. 목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호 주-김 태 현 선교사

1. 어학공부에 힘씀

2. 금년에는 한인교회의 목회와 현지선교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계시다.

3. 본부로 부터 송금접수

* 기도제목 *

1.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선교의 기반을 위하여

아르헨티나-백 성 룡 선교사

공한미작

* 기도제목 *

1. 목사님과 온 가족을 위하여

일본-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1. 선교활동 녹음과 사진을 본부로 우송

2. 이권사님 부인성경반 인도-참석자 중 「유도」라는 부인이 성경공부 중 감동을 받아 자녀 3남매까지 인도하여 매주일 교회에 출석함

3. 3월 9일 주일에 선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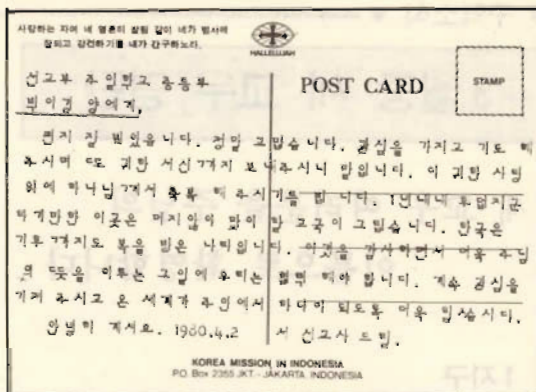
4. 병원대합실에서 환자전도 계속 중

5. 환자 중 전도열매자인 당원을 방문 위로함

* 기도제목 *

1. 유선교사님 내외에게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2. 전도열매자들이 계속 교회에 출석토록



(서만수선교사에게서 온 편지)

서 독-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1. 4월중순까지 박사학위·논문쓰는 일 계속 중임

2. 7월중순까지 선교학 연구

3. 본부에서 금년 5월부터는 월600불(미화) 지급하기로 함

* 기도제목 *

1. 박사논문이 속히 완성되도록

2. 박선교사님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인 도-엘리아 켈간선교사

1. 3월 11일에 현지에 도착하여 부모 형제들을 반갑게 만나다.

2. 3월26일에 열릴 카시미르 복음주의협회의 주최인 사역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3. 스리나가르지역의 지역교회 목사로 설교해 줄 것을 요청받다.

4. 현지선교를 위해 티벳트언어를 배울 예정이다.

* 기도제목 *

1. 티벳트언어를 속히 습득하기 위하여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2. 한국에서 우송한 책들과 타이프라이터 및 짐들이 잘 도착되도록

본 부-해외복음선교회

* 기도제목 *

1. 현지선교사님들을 여러가지 면에서 잘 뒷받침될 수 있기 위한 모든 여건이 잘 구비되도록

2. 선교후보자들을 훈련시키는 계획이 잘 전개되도록

3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지구

삼 선 구 역	곽노준	성북구 삼선동 5가 407, 10/1
삼양④구역	이복숙	도봉구 미아7동852-606, 29/7
정 능 구 역	서경덕	성북구 정능 2동521-1, 2/1
도봉③구역	이혜경	도봉구 방학동 88-10, 6/3
도봉②구역	이윤희	도봉구 도봉동 185-49, 13/ 8
광희②구역	김혜선	중구 을지로 6가
상 계 구 역	한혜숙	도봉구 중계동 133-48
창신②구역	정을용	종로구 창신1동457-9,
송인②구역	유기숙	종로구 송인동 20-18, 11/4
삼양④구역	이의한	도봉구 미아1동 837, 16/5
우이①구역	안의영	도봉구 우이동 21-52
안 암 구 역	김호철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22/5
창신②구역	한승수	종로구 창신동 131-62, 9/6
안 암 구 역	손재삼	성북구 안암동 5가 85
삼양④구역	김형철	도봉구 삼양동 670-12, 27/4
길음①구역	김재현	성북구 길음3동 940, 5/5
삼양②구역	권선희	도봉구 미아2동 791-2727, 13/3
송인①구역	김남형	동대문구 용두동 251-16, 23/1
종암②구역	황현주	성북구 하월곡동 88-781, 6/10
길음①구역	한은미	성북구 길음동 606-3, 22/1
삼 선 구 역	정현주	성북구 동소문동 2가 167,

● 2지구

흥인①구역	장연일	중구 신당6동 44-15, 11/3
구이②구역	이혜옥	성동구 구이동 243-44
송 정 구 역	박충남	성동구 송정동 50-18
종곡③구역	이미경	성동구 종곡동 122-18
길 동 구 역	유명석	강동구 길동 260-5, 3/4
종곡②구역	최봉희	성동구 종곡2동 82-4, 9/8
쌍림①구역	김복자	중구 장충동2가 57-2, 4/2
흥인②구역	김순애	중구 신당1동 255-145, 6/4
마 장 구 역	박복동	성동구 사근동 182-13
면목③구역	이용애	성동구 종곡동 542-4
종곡①구역	박태민	성동구 종곡동 229-15, 8/2
전 능 구 역	김종환	동대문구 전농동 166-28, 3/2

광희②구역	김경환	중구 광희동 2가 123-1
면목③구역	김영희	동대문구 면목동 면목APT. 3동508호
암 사 구 역	이수영	강동구 암사동 암사APT. 30동206호
구이①구역	성봉준	성동구 광장동 위커힐 APT. 25동502호
구이②구역	김인애	성동구 구이동 242-116

● 3지구

목정②구역	조희순	중구 북정동 27-10
금 호 구 역	이화경	성동구 금호동2가 621, 12/1
응 봉 구 역	김태연	성동구 응봉동134-62, 10/4
도곡④구역	하범수	강남구 도곡동 개나리APT. 1동402호
잠실①구역	이경임	강동구 잠실 주공APT. 26동102호
청 구 구 역	김천임	중구 신당동 333-570, 13/8
악수①구역	장용택	중구 신당동 349-134
보 광 구 역	박영봉	용산구 보광동 265-449, 26/5
선정②구역	박춘화	강남구 삼성동 45-513
옥수②구역	서승국	성동구 옥수1동 424-233, 7/5
장충②구역	한진구	중구 장충동2가 175, 11/3
장충②구역	주영진	중구 장충동2가 180-10, 8/5
청 구 구 역	김기준	중구 신당동 346-520, 20/3
잠실③구역	정해수	강동구 잠실 2단지 228-510
장충②구역	백미진	중구 장충동 1가 193-171, 11/2
자양②구역	이영오	성동구 모진동 180, 26/2

● 4지구

방배①구역	홍성현	관악구 방배 2동 548-2, 31/5, B동 101호
신림②구역	강구용	관악구 신림 8동 55-20, 5/1
신림①구역	이정남	관악구 신림 2동 120-29
신림①구역	김대식	관악구 신림 2동 109-95
상도①구역	이영순	관악구 노량진동 288-8
시 흥 구 역	이수인	영등포구 독산 3동 33-1, 12/7
시 흥 구 역	황충종	영등포구 시흥동 158-37, 38/3
필동③구역	김미숙	중구 필동 3가 31-20
인 현 구 역	허윤정	중구 초동 51-3, 12/2
필동③구역	김남혁	중구 필동 2가 123-11, 3/4

● 5지구

홍은②구역	송석수	은평구 홍은2동 8-9, 18/3
홍은②구역	최영길	은평구 홍은1동 57-1, 을센APT.
목 동 구 역	조규호	강서구 신정동 살계재APT. 6동407호
을지②구역	이경자	중구 추곡동 85번지
가 회 구 역	최관호	종로구 사간동 34, 13/1
신 촌 구 역	김용수	서대문구 북아현동 3동, 13/6
종무②구역	최복순	중구 충무로 5가 36-3

- 화곡 ②구역 김중희 강서구 화곡동 56-600
 중 부 구역 조명국 중구 을지로 5가 중부시장 166호
 북가좌구역 김홍순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394, 10/7
 해 화 구역 박성훈 종로구 해화동 188, 8/5
 을지 ①구역 임경란 중구 을지로 3가 65-3, 7/2
 중 부 구역 홍성민 중구 예관동 31-2, 18/3
 오 장 구역 김중식 오장동 101-1

새로 나오신 교우는 장년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매주일 오전 11시50분에 동관 3층 장년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 축하합니다 (3월중 결혼)

- 정재일군(청년부회원) 8일 오후 1시30분 신혼예식장에서
- 김성남군(김치길씨 윤봉옥권사 장남)과 함미자양(안암 ①구역) 14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홍성희양(제이성가대원) 15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박영자양(박성찬씨, 이형순씨 딸) 15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이기창군(봉천 ②구역)과 장진숙양(봉천 ②구역) 15일 오후 1시 고려예식장에서
- 오현옥양(김초연권사 손녀) 15일 오전 10시 영빈관에서
- 이경립군(박의범권사 아들) 18일 오후 1시 이화예식장에서
- 김영호군(김광삼집사, 허윤실권사 아들) 24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이태균군(이희진집사, 나화봉권사 아들)과 조희영양(조현명장로, 양정백권사 딸) 25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김백오군(화곡구역)과 전성희양(전근항씨, 하광숙집사 딸) 28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성준군(김도태집사 아들) 29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광섭군과 조현주양(면목구역) 29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 위로드립니다 (3월중 별세)

- 최옥영씨(장영옥집사 모친) 25일 별세 27일 장례

* 권찰수첩 *

성공적인 심방 <1>

심방은 영혼을 위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성공하기에도 힘든 것이다. 이 어려운 심방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심방하는 여러분의 사명감도 있어야 하고 심방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심방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이나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심방의 목적 중에는 일반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이 있다.

1. 일반적 목적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방이어야 한다.

고전 10:31에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 6:9-10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고 교훈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 선한 일, 착한 일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선한 일을 의미한다.

(2) 복을 빌어 주기 위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심방해야 한다.

개인과 가정이 영적으로 신령한 복과 육신적으로 성공과 부요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리고 선한 일에 부한 생활을 살도록 복을 비는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사명인가! 민 6:23-27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찌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 10:12-13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복을 빌고 자신도 이 복을 받아 누리자.

김 재 창 목사 (심방위원회위원장)

시편에서 줌

주간지 만나

시편 67: 1, 2

은혜 주신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취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축복의 근원은 영원하시며, 권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인간의 덕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가담한 사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에 내가 무엇 무엇을 잘 했으니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만 회개하면 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성도의 은혜를 통하여 만방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생명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마다않고 하나님을 위한 길에 서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주시고 마침내 땅 위의 만민들이 다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심정입니다.

시편 67: 3 - 5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합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자는 과거를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어 공평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 같으나 필경은 하나님께서 만국 만인의 역사를 주장하심을 우리는 그 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위를 감탄하는 찬송이 터져 나와 구원 얻는 백성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7: 6, 7

땅위에 풍년을 주심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풀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땅의 복까지 넘치도록 주셔서 땅이 풍성한 소산을 맺는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받는 육신의 복에 대하여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못 받을 장소와 시간이 없이 어디서나 어느 때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짐승과 오곡백과, 산천초목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다소 명예를 상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일이 당장에는 있을지 모르나 필경은 참 명예와 참 지혜와 참 부요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 성도에게 큰 은혜로 지혜와 물질까지 주실 때 불신사회는 우리들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이 원고는 김장인목사의 시편 강해를 편집실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4월 8일, 1000여 교우 참석

새 성전 착공예배

10여년간의 눈물과 정성어린 기도가운데 준비한 새 성전 건축의 막이 올랐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새 성전 건축 현장인 논현동에는 1,000여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새 성전 착공을 위한 예배가 감격속에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김창인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정상우목사의 기도, 김재창목사의 성경봉독(학개서 1장 7~15절) 후 「성전을 짓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김창인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 후 건축위원장 김기정장로의 경과보고와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감

사의 인사 후 박윤선박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예배는 1차는 공사(본당, 교육관, 골조공사 및 지붕)를 담당하게 된 정우개발주식회사의 민석원사장과 현장 사무소장 및 직원들도 참석하였다.

새 성전이 착공 됨에 따라 새 성전 건축현장에서 매일 새벽 정식으로 기도회를 갖는다.

매일금식기도

또한 새 성전 착공일부터 준공시까지 제직들이 조를 편성 매일 새 성전건축과 국가나 민족, 교회

를 위한 금식기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 조는 교역자 및 장로중 1명, 권사 1명, 남 집사 2명, 여 집사 3명 등 7명이 1개조가 되어 하루씩 금식하게 되는데 그 순번은 매주 주보에 게재되고 금식기도 요령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 그 날자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다.

비단 제직뿐만 아니라 온 교우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 봉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5월 1일 저녁 7시30분에 제22대 장로 장립식

교회는 오는 5월 1일 저녁 7시30분에 본 교회당에서 제22대 장로장립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장로로 장립될 분은 지난해 10월 28일 공동회의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그동안의 노회의 장로 시취를 거치고 장로장립케 되었다.

이번에 장로장립케 될 분은 이창업·김원선·오진국·박치민·정하우·이병학집사등 6명이다.

오는 5월 18일에 사랑의 헌혈 실시

교회는 오는 5월 18일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헌혈을 하기로 했다. 모든 교인은 미리 준비하여 많은 헌혈자가 나오도록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임전도사 두분

조준상·최봉호전도사

교회는 현재 선교부 부지도로 수고하는 조준상전도사와 초등부 지도로 수고하는 최봉호전도사를 교회 전임전도사로 초빙키로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공석이던 고등부 부지도를 중등부부지도로 수고하던 김정훈전도사로 중등부부지도는 초등부부지도였던 김양래전도사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청년 부부지도에는 황명길전도사(신일)를, 교육위원회 지도에는 부지도로 있었던 정은표전도사를 각각 임명했다.

춘계 성례식 마쳐

교회는 지난 3월 28~30일의 춘계성례식을 모두 마쳤다. 문답과 세례식, 성찬식으로 진행된 19

80년도 춘계 성례식은 「예수님을 본받자」는 주제로 (주제성구 요한 13:12-15, 찬송 457장) 열렸다.

1980년도 춘계 성례식에서 학습 문답 및 유아세례, 세례, 입교, 개종자는 총 475명이었다.

구분 세례 학습 입교 유세 개종 계					
남	82	63	8	49	2 204
여	120	115	5	29	2 271
계	202	178	13	78	4 475

선교사 파송키로

당회는 홍콩과 인도네시아에 부교역자로 1명씩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홍콩 및 인도네시아의 선교 업무가 확대되어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으므로 1명씩 부교역자를 파송키로 하고 인선이 되는대로 곧 파송할 계획이다.

베델성서연구반 신설

성경학원은 지난 4월21일(월) 베델성서연구반을 신설하였다.

베델성서연구반은 2년과정으로 일주일에 한시간씩 강의를 하게 된다. 이 과목은 정상우목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베델성서연구원에서 발행한 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 반은 2년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하게 되고 수료증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시작된 이 반은 월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고 목요일에는 제직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시간은 오후 7~9시까지이다.

초등부 성가대

합창제출연

초등부 성가대는 오는 5월 13일(화) 한국기독교 교육진흥원과 세계 아가페 선교신학원(원장, 원우연목사)이 주최하는 제2회 어린이 성가대 합창제에 출연키로 했다.

초등부 성가대는 지난 해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박선자권사 등 입상

지난 4월8일 시내 용두동 동원교회당에서 열린 전국수도노회여전도회 연합회 총회와 성경암송대회에서 우리 교회의 박선자·김상순·양경희·김순실권사와 강용택집사가 출전하여 박선자권사가 2등(1등 없음)

김상순권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이날 암송대회는 15개교회에서 19명이 참가하였고 암송범위는 요나서 전장이었다.

장년새신자부

세례반 수료후 수세

당회는 올해 신설된 장년새신자부의 세례반 수료생에 대하여 수료와 동시에 교회법 절차를 따라 세례를 주도록 했다.

이는 세례반을 자를 보다 더 충실하게 교육시킬 수 있고 또한 해마다 봄·가을에 500여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게 되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키며 학습반, 세례반을 거침과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되어 일반성도로 하여금 더 많은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이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본 교회 영문표기

Chung Hyeon으로

지난 1974년 당회에서 본 교회의 영문 표기를 「Chung Hyeon」으로 정하고 이를 「충현」지 6호(1974. 6.23)에 알림 바 있으나 최근 대내외 문서 중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임의로 영문표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앞으로 영문표기를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통일된 문자를 사용하기를 요망하고 있다.

각 종 통 계

1980. 3. 2 (매월 첫 기기준)

구분	남	여	계	신	세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계
에	I부	146	313	459	신	세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베	II부	396	895	1,291										
	III부	389	937	1,326										
	IV부	228	542	770										
주	주 일 저 녀	195	319	514	급	별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삼 일 저 녀	112	309	421										
	어린이새신자부	41	27	68										
	영 아 부	120	86	206										
일	유 치 부	124	126	250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계	인
	유 년 부	190	200	390										
	초 등 부	183	204	387										
	장년새신자부	34	53	87										
학	중 등 부	135	155	290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계	인
	고 등 부	146	143	289										
	대 학 부	78	71	149										
	청 년 부	55	82	137										
교	장 년 부	26	323	349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계	인
	노 년 부	37	112	149										
	산 업 교 육 부	24	66	90										
	선 교 부	35	66	101										
교	새 가 정 부	18	33	51	교	인	학	교	원	입	교	인	계	인
	계	2,712	5,062	7,774										

토막소식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4월21~26일까지 부산 전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오는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해외여행을 하실 예정이다.

*...교회는 1980년도 노회총대로 김기정·이동규·한경일장로를 파송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박창수장로가 교회 동산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교육위원직 사임을 허락했다.

*...자산관리위원회에서는 동산 왕래용 자전거 1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산업전도회는 지난 고난주간(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을 맞아 특별새벽기도회를 주관하여 실시했다.

*...제2여전도회는 양구에 개척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중에 있다.

*...기도원은 자체 부흥회를 월1회 갖기로 하였다.

*...어린이새신자부는 3월 23일 교사조별 토의 시간을 가지고 새신자교육에 관한 토의를 했다.

*...영아부는 3월18일 「주기도문 외우기」를 했는데 교사, 학생,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치부는 지난 3월 한달을 전체 학생심방기간으로 갖고 심방했다.

*...유년부는 3월21일, 지난달에 실시한 일제심방에 대한 심방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초등부는 3월23일 장충단 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고 3월 한달은 반별친교의 달로 정하고 실시했다.

*...중등부는 3월 9일 자체내에서 준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져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3월 5~8일까지 동기수양회

를 가졌는데 매일 교사, 학생 164명이 참석했다.

*...고등부는 3월23일 면려회문화부주관으로 교사초청좌담회를 가졌다.

*...대학부는 3월한달 동안 지도교역자가 중심이 되어 면려회 임원들의 심방을 마쳤다.

*...청년부는 3월23일 청년부실에서 「국가와 교회」란 제목의 발제토의를 가졌다.

*...장년새신자부는 3월23일, 새신자부실에서 「순교보」영화를 상영했다.

*...장년부는 3월 9일 장년부실에서 장경두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노년부는 3월16일 노년부실에서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는데 170여명의 학생, 교사가 참석했다.

*...선교부는 3월29일 아프리카지역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교회들에 게시했다.

*...새가정부는 3월23일 학생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산업전도교육부는 3월30일 성경퀴즈대회를 가졌고 또한 회지 「산돌」에 대한 발행계획을 세웠다.

인사이동

1. 성가대

가. 임명

제일성가대 이경님 소프라노
제일성가대 백은주 소프라노
제삼성가대 김은백 반주

나. 퇴임

제일성가대 김민정 앨토
제삼성가대 윤경숙 반주

2. 주일학교

가. 임명

영아부	박홍규(남)
유치부	이재덕(남)
유치부	김번자(여)
유치부	천혜정(여)
초등부	이은혜(여)
초등부	이춘희(여)
초등부	송정심(여)
초등부	조영숙(여)
중등부	김승배(남)
중등부	문옥희(여)
중등부	강윤재(여)
중등부	변정임(여)
고등부	김인숙(여)
고등부	심정희(여)
고등부	김종권(남)
고등부	최혜숙(여)
대학부	최정만(남)
장새부	김연옥(여)

나. 퇴임

초등부	조숙희(여)
초등부	심금숙(여)
초등부	심혜숙(여)
중등부	이우신(여)
고등부	장주영(남)
고등부	김신성(여)
고등부	김귀자(여)
고등부	김혜숙(여)
고등부	김덕희(여)
고등부	박춘자(여)
고등부	김영숙(여)

3. 구역권찰회

가. 임명

김단용 구역장(장위 ①구역)
이갑제 구역장(장충 ④구역)
안춘진 구역장(봉천 ①구역)
안순이 구역장(초동 ②구역)
한영옥 권찰(봉천 ①구역)
한순원 권찰(염리 구역)
황승옥 권찰(당산 구역)
박갑배 권찰(성수 ②구역)
박신춘 권찰(행당 구역)

나. 퇴임

장명규 구역장(장위 ①구역)
최정만 구역장(장충 ④구역)
김경생 구역장(봉천 ①구역)
정은표 구역장(초동 ②구역)

4 월 행사표

- 1 - 5 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6 일 부활절 ·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회 · 재정위원회 · 산업전도회
- 11일 전체 철야기도회 · 구역예배
- 13일 남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 고등부 헌신예배
- 16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20일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선교 실행위원회
- 21 - 24일 심령부흥회 (청년부 주최)
- 23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5일 구역예배
- 27일 권찰회 · 전도위원회 · 교육위원회 · 산전 교육부 헌신예배
- 29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새 성전 건축의 막이 올랐다. 10여년 동안이나 기도하던 성전 건축의 막이 올랐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적인 일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역사적인 이 일에 방관자가 없도록 하자.

착공예배 당일의 모습을 특집화보로 꾸며 새 성전 건축의 우리의 소원을 모아 보자.

*...우리 교회의 5대목표 중에 하나인 북한선교회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어 알아 보았다. 북한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다 새롭게 하고 적극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준상전도사님이 북한선교회 사업의 일환으로 다녀 온 차량선교사업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선교나 기타 모든 주를 위한 일들이 어느 한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영휘전도사님의 동남아 선교여행 보고서를 실는다. 이미 지난 달에 실을 예정이었으나 지면 관계로 못 실고 이 달에 실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난 4월 정기 제직회에서 실시하였던 월간총현에 대한 설문 결과 모두가 월간총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더욱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보다 좋고 유익한 월간총현을 위해 더욱 힘 써야겠다.

* 1980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 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월 간 총 현

4 월호

제 8 권 제 4 호

통권 제 76 호

발 행 인 / 김 창 인

주 간 / 윤 형 철

편 집 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장 로 회

1972년 4월30일 창간

1980년 4월27일 발행

100-서울 중구 중무로 5가36

260-3407 · 3408

믿음 성장의 비결은?

양분섭취와 순종이 있어야



질문 / 몇 년 몇 십년을 믿었는데도 제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1. 믿음의 기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하듯이 나무나 씨를 심는데 땅이라고 하는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믿음의 기초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마7: 24-27)

우리의 믿음의 씨요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어진 길과 밭이나 습지가 없는 돌짜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우거진 곳에 그대로 심는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마침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풍성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씨뿌리는 비유로 교훈해 주신 것이다. (마13: 3-9) 여기 좋은 밭은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밝은 죄를 회개한 깨끗한 심령의 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영구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증거 하는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내 생명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의심없이 믿고 고백한 신앙이라야 옥도에 뿌리 박은 신앙인 것이다. 이 성경에 깊이 뿌리 박은 신앙이 아니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기형아적인 신자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2.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양식이 제대로 섭취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될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세 때에 적절한 양식이 공급 되어야 신체도 크고 지식도 인격도 믿음도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다. 어른들도 적당한 일용양식이 섭취될 때만 건강이 유지되고 의욕있는 활동으로 보람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

이다. 롬10: 17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4: 4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하였으니 누구에게나 육신을 위한 양식과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 두가지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육신을 위하여 하루 세 때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하루 석장 주일에는 다섯장씩을 계속 읽는다면 1년에 1199장을 보게 되므로 결국 친구약 성경 전부를 보기도 10장을 더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양식을 제대로 섭취한다고 하면 믿음은 틀림없이 일취월장할 것이다.

3. 먹는 양식을 소화 시키는 순종 생활이 있어야 한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도 적당한 활동을 해야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영적 믿음의 양식도 섭취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활동이 있어야 믿음이 크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일을 부지런히 힘쓴다면 틀림없이 건강한 신자가 되며 실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이다.

옛날 우스갯소리는 하나님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먹었기 때문에 (요23: 12) 남다른 축복을 받았고 큰 시험 환란 중에도 원망과 낙심없이 잘 이겨 냈으며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아 행복된 성도의 일생을 살게 된 것이다.

김 재 창 목사 (심방위원회위원장)

일로암
뭇가아씨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처럼
궁홀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 : 12 - 17〉